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몬(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시편 118(117),2-4,16-18,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람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독서] 요한 5,1-6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성가	8시 미사	입당 221	봉헌 515	성체 151 162	파견 134
	11시 미사	입당 226	봉헌 515	성체 151 162	파견 134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2주일(4월 12일)		부활 제3주일(4월 19일)		부활 제4주일(4월 26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애리스텔라	2구역: 이주향요한	정일환프란치스코	3구역:변귀태성우안토니오	채성일토마스	4 구역
제 1 독서	정일환프란치스코	2구역: 유진숙수산나	채성일토마스	3구역:이건호요한	강신히요한	4 구역
제 2 독서	정영희글라라	2구역: 손정옥리디아	임승원루카	3구역:이수인글라라	김영선안젤라	4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평화를 주시는 자비로운 예수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던지신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삼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 도망을 가고, 가장 아끼던 제자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는 평화를 주고 계신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팔아넘긴 이스가리옷 유다나, 당신을 모른다고 맹세한 베드로나, 도망친 제자들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용서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자문을 해본다. 나약한 인간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통보다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신다. 스승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은 문을 모두 잠그고 숨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했다는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신다. 실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동료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토마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던 토마스도 용서하신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배신과 의심까지도 희망과 평화로 바꾸신다.

주일 저녁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송되는데 그중에 ‘복불복’이라는 꼭지가 있다. 음식이나 잠자리를 놓고 준비를 뽑거나 경기를 하는 코너다. 출연자들은 좋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데 승자들이 패자들에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던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점심을 먹지 못하든, 추운 겨울에 노숙을 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자면 된다는 말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짓게 하기 위해 한 이 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니까, 나는 정리하고 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찮아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기심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의 자리는 없다. 더군다나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나 용서 그리고 평화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일신의 편안함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다. 자비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불쌍히 여기다.’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보여주신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자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쓸 것이 아니라 삶을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과도 함께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평화로울 수는 없다.

인천주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말씀

잊을 수 없는 만남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고, 그중에는 잊을 수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한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못난 제자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사하는 말씀입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시어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자신들이 받은 용서와 평화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토마스는 스승이 위험을 무릅쓰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나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요한11, 16)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에게 더 큰 신뢰를 지녔기에 그분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았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버팁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십니다. 이런 만남 덕분에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남다른 실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았던 토마스를 찾아오시어 남다른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토마스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크게 다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은둔하기 쉽습니다.

토마스로 그럴 위험에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동료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마태 18,20)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건네시고,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제2독서)을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제1독서)를 통해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런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간다면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우리에게 선사될 것입니다.

손희송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믿음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

글_전송규 아오스딩 신부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나는 누구일까?” 한번쯤은 누구나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성체조배를 하는 가운데 수첩을 꺼내 생각나는 대로 빼곡히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우’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에 적힌 단어들을 긍정, 부정, 희망, 절망 등으로 분류해 봅니다.

영동하게도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몸담았던 연예기획사를 나온 일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획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기획사를 배우가 연예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배우가 기획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결심한 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신앙인 ‘소화 데레사’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면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 연예인이란 예쁜 포장지를 벗겨야 했습니다. 저의 연기를 통해 행복을 느꼈다는 팬들의 격려의 말만을 가슴에 담은 채로, 배우로서 누렸던 존재감과 특혜를 버리고자 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집착을 놓고, 그동안 연기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참아왔던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느님이 함께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기획사 없이 1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맨발로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도움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극을 할 때는 처음으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를 했고, 미술공부를 할 때는 몇 년을 도서관과 작업실에서 보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전보다 어려워지만, 의외로 감사할 일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소외됐다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기도와 자신감

받고 살아가는 배우가 갑자기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어린 예수님 손안에 있는 작은 공’ 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놀다가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두어도 좋을 그런 장난감’ 으로 비유한 성녀 소화 데레사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모든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 제 본연의 모습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진 상처는 어느새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변했습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던 지인들도 이제는 저에게서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느님은 누구신가?” 세례를 받고 삶의 고비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세례와 함께 새로운 고생문이 열렸다고도 말합니다. 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김현정 소화데레사
배우/화가

성경산책

의심에서 신앙으로 나간 토마스 사도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사도는 평소에도 사사건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심과 질문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대충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하려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베타니아의 라자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두 번씩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나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스승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1.1-16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둔 전날 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는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나중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토마스가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14.1-14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날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

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20,19-29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토마스의 오랜 의심은 드디어 강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 질문이 없으면 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영엽신부
서울 대교구

♥ 괄호 속을 채워 보세요.

네 ()을 여기 대보고 내 ()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내 ()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 저의 ()!”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 않고도 믿는 사람은 ()하다.”
(요한20,27-29)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4월 12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신마태오(현규)	신유스티나
	연	신마태오(현규)	이골롬바
	연	김클레멘스(진철)	노소피아
	연	이요한/박마리아	가족
	연	이베드로/이요셉	이요한
	연	김제이슨(재성)	이요한 가족
	연	홍요셉	이안나(순자)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가장볼쌍한연옥영흔	임루시아
	연	오안나(봉순)/태길호	이크리스티나(인숙)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윤숙용	심아브라함/사라
	생	본당신부님	사목회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생	본당내 모든 봉사자	사목회
	생	안나회원들	안나회
	생	원젼마(명숙)	찬미성가대
	생	김그레이스(민정)	전수산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모든일에 감사	남수산나
	생	임탁/남경지	남수산나
4월 1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4월 16일 목	생	세월호희생자유가족	이베로니카
4월 18일 토	연	정베드로/박막달레나	전안드레아/데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	329	-	329
헌 금	-	\$2767.85	-	\$2767.85

< 교무금 > \$2,539

박민진(2-4) 정경희(4) 김상실(5-6) 임윤택(4)
전숙희(4) 김순이(4) 조우송(5) 남금지(4)
김관숙(4) 최상철(4) 배젼마(3-4) 강시구(1-4)
홍흥기(1-4) 허순구(3-4) 김종성(1-3)

< 성소후원금 > \$70

임윤택(4) 김순이(4) 홍흥기(1-4)

< Bishop's Appeal >

홍흥기(1-4)

< 감사헌금 >

심연자 \$500

< 성목요일 > \$822

< 성금요일 > \$108

< 부활성야 > \$848

~~~~ 오늘 간식은 전숙희 데레사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

- 공 지 사 양 -

- ◆ 4월 18일 토요일 아침미사는 성서모임 감사미사 관계로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 ◆ 건진성사 : 4월 26일 11시 반 교중미사 중
  - \* 집전 : 춘천교구 김윤희 루카 주교님
  - \* 주교님께서 트라이밸리 건진미사를 마치고 오시는 관계로 이 날만 교중미사 시간이 30분 늦춰집니다.
- ◆ 건진성사 교리  
오늘과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 ◆ Rice Bowl 봉헌 : 성당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화요일/문의 510-847-3014
- ◆ 요아킴/안나회 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전례성가대 모임 : 오늘 오후 4시 김원조 도미니코 맥
- ◆ 본당 성서가족 감사미사  
일시 : 4월 18일(토) 오전 10시 반  
장소 : 본당 성전  
대상 : 창세기/탈출기 그룹을 마친 성서가족 모두와 말씀의 봉사자들  
\* 이 날 미사 후 12:30까지 성서모임이 있습니다.
- ◆ 청소년 기금마련대회 준비모임  
4월 1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교육관 202호실
-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일시 : 4월 23일(목) 오후 4시  
문의 : 이선희 막달레나 510-566-0582
- ◆ 대건 장학생 선발  
지원서 : 친교실이나 사무실  
\*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 서중부 여성 제10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5일(목) - 6월 28일(일)  
대상 : 건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여성  
비용 : \$250  
신청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4월 반모임 안내**

| 구역 | 반         | 시간         | 장소        |
|----|-----------|------------|-----------|
| 1  | 오클랜드      | 4월18일(토)6시 | 교육관 107호실 |
|    | 샌리엔드로 E   | 4월25일(토)6시 | 임희숙세트리다맥  |
|    | 샌리엔드로 W   | 4월18일(토)6시 | 박호영헬레니맥   |
|    | 실버반       | 4월25일(토)2시 | 파운더스룸     |
| 2  | 캐스트로밸리E/W | 4월25일(토)6시 | 이주황요한맥    |
| 4  | 플레젠힐      | 4월25일(토)7시 | 정석준요한맥    |
|    | 라즈모어      | 4월24일(금)5시 | 조병국바오로맥   |

- ◆ 북가주 한인성당 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6일(토) 12시까지 집결  
장소 : Wildhorse Golf Club  
2323 Rockwell Dr. Davis  
회비 : \$180(부부) \$100(개인)  
신청마감 : 4월 26일까지  
문의 : 김진홍 안토니오 916-605-6974
- ◆ 제 21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에제 36, 26)  
강사 : 이미숙 아가다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 웃음 치료사)  
일시 : 6월 6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점심/저녁 제공, 무료 베이비시팅 제공  
문의 : 염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주일학교 소식**

- Sunday School 11:00 ~ 12:15
- 영어미사 12시 30분

**안국학교 소식**

- 4월 18일 : 미술특강
- 4월 25일 : 한국어능력시험